

5G 먹거리 찾아 나선 이통사 게임·스포츠 ‘눈독’

KT, VR 게임 잇따라 개발

SKT·LGU+, 실감형 스포츠 중계

내년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킬러 콘텐츠’ 찾기에 한창이다.

5G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대용량 초고속 통신에 적합한 콘텐츠를 발굴해야 하는데 현재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게임과 스포츠가 꼽힌다. 통신 3사 역시 두 분야에서 먹거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게임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형 미디어와 시너지가 큰 분야로 꼽힌다. AR 기반 게임 ‘포켓몬고’의 흥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게임시장은 5G 상용화에 맞춰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게임시장조사업체 뉴주에 따르면 세계

게임시장은 2017년 1천217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21년 1천802억달러(20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게임 이용자의 상당수는 데이터 헤비 유저로 파악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는 하루 평균 90분 이상 플레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사 입장에서 게임 이용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국내 통신 3사 중 KT는 VR 게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올해 초 무선 VR 게임 ‘스페셜포스’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VR 게임 개발사 로코반스튜디오와 손잡고 비디오게임 ‘메탈슬러그’의 VR 버전을 개발하기로 했다. 넥슨과는 인



기 게임 ‘카트라이더’를 활용한 VR 게임을 개발 중이다.

KT는 글로벌 유명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VR 게임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도 지난달 ‘5GX 게임 페스티벌’을 열고 360 VR 라이브를 활용한 e스포츠 중계 기술과 VR 게임을 공개했다. 앞으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유수’를 통해 5G, VR, AR(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스포츠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스포츠 중계에 좀 더 힘을 쏟고 있다.

5G 시대에는 원하는 각도와 선수를 골라보는 스포츠 중계가 대세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미 ‘골라보기’ 서비스를 올해 프로야구와 골프 중계에 적용했다. 최근에는 데이터와 그래픽을 활용

한 프로야구 ‘AR입체중계’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게임 개발사들과 VR 게임 방송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중계 역시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다. 프로야구 한 경기 시청에는 평균 3.6GB 데이터가 소모된다. 5G 시대가 되면 고용량 실감형 중계가 자리 잡으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5G 시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서비스는 현재 LTE에서 제공되는 수준보다 고도화할 것”이라며 “멀티뷰를 지원하는 스포츠 중계와 큰 용량의 클라이언트 파일 다운로드 없이 실행 가능한 클라우드 게임이 보편화되고, AR과 VR 기반의 게임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SK텔레콤, 4배 빠른 와이파이 상용화

최대 속도 4.8Gbps

SK텔레콤은 기존보다 4배 빠른 차세대 와이파이 서비스 ‘T 와이파이 AX’를 상용화했다고 17일 밝혔다.

T 와이파이 AX는 802.11.ax 표준 기반의 와이파이 서비스로, AP(접속장치)당 최대 4.8Gbps의 속도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 2013년 상용화된 기가 와이파이(802.11ac Wave1, 1.3Gbps)보다 약 4배 빠른 속도다.

스마트폰 기준 최대 속도는 1Gbps로 기존(866Mbps)보다 약 1.2배 빨라졌다. 내년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데이터 통신 효율이 향상돼 최대 속도가 1.2Gbps까지 늘어날 것으로 SK텔레콤은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와이파이 사용량이 많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광주 유스퀘어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상용망을 구축했고, 전국 데이터 트래픽 밀집 지역으로 커버리지(통신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갤럭시S8 이후 출시된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별도 조치 없이 차세대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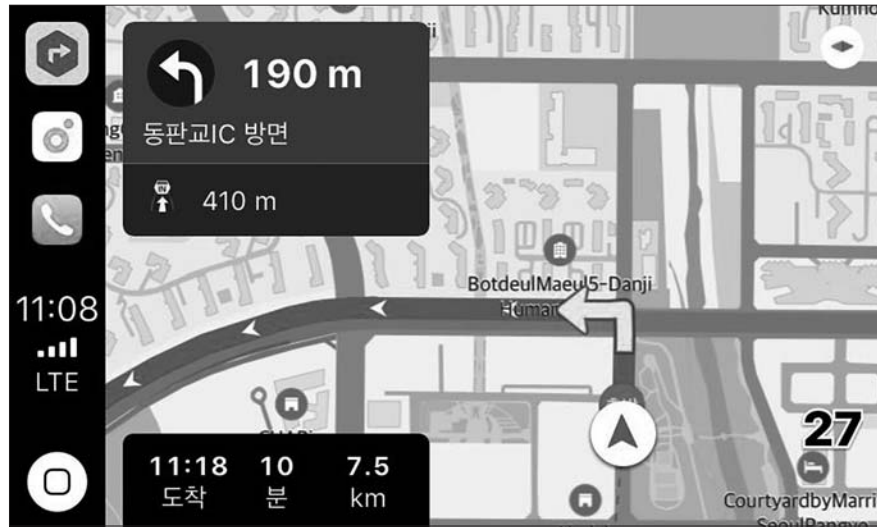
T 와이파이 AX는 국내 최초로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상용 AP를 활용한다. 해당 AP는 지난달 말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자파 적합 인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종 장비 승인을 받았다.

T 와이파이 AX는 4개의 안테나를 활용해 전파를 송수신하며, 활용 주파수 대역폭도 160MHz(메가헤르츠)로 기존 기가 와이파이보다 2배 넓다. 여기에 트래픽이 많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수 이용자 대상 동시 데이터 전송(OFDMA, MU-MIMO) ▲AP 혼잡 지역에서의 와이파이 성능 개선(DSC) 등의 기술을 적용했다.

SK텔레콤은 또한 최대 속도 구현을 위해 SK브로드밴드의 ‘10기가(Gbps)’ 인터넷 기반 기술을 활용했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기사제보 227-0000



카카오내비, 국내 최초 ‘애플 카플레이’ 지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내비'가 국내 내비게이션 앱 중 처음으로 애플의 차량용 서비스 ‘카플레이’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을 시작한 카카오내비는 이로써 구글과 애플의 차량용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유일한 국내 내비게이션 앱이 됐다.

애플 카플레이에 적용된 카카오내비는

차량 라이트 센서를 통한 야간모드 자동 지원 등 최적화를 이뤘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애플은 iOS 12 버전에서 카플레이에 외부 업체의 내비게이션 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카플레이가 적용된 차량은 약 50만대로 추정된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꼭 운동해야 하는 이유... “심부전 위험 36% 낮춘다”

강북삼성병원, 5만7천명 분석결과 “하루 60분씩 주3일 운동해야”

평상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심부전’ 위험요인이 최대 36%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이 때문에 심장질환의 ‘종착역’으로 불리기도 한다. 완치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 환자의 절반, 남성 환자의 35%가 5년 내 사망한다.

성균관대강북삼성병원직업환경의학과 유승호 교수팀은 2011~2014년 사이 건강검진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은 5만7천449명을 대상으로 평상시 신체활동량과 심부전 위험요인인 ‘좌심실 이완장애’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좌심실 이완장애는 혈액을 받아야 하는 좌심실의 확장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심부전이 올 수 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를 운동량에 따라 ▲건강증진 그룹(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자전거 타기,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고강도 동작을 하루 약 60분, 주 3일 하는 경우) ▲최소 신체활동 그룹(보통속도로 자전거 타기, 복식테니스,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루 약 30분, 주 5일 이상 하는 경우) ▲비신체활동 그룹(별도의 운동이 없는 경우)으로 나눠 좌심실 이완장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이 결과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좌

심실 이완장애 유병률이 낮아지는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건강증진 그룹과 최소 신체활동 그룹의 좌심실 이완장애 위험도는 비신체활동 그룹에 견줘 각각 36%, 16% 낮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심부전 환자는 2010년 9만9천명에서 2016년 12만2천여명으로 22.9% 이상 증가했다. 진료비도 2010년 584억원에서 2016년 1천65억원으로 82.3%나 급증했다. 고령화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은 지속적인 운동이 혈관의 탄성 유지와 이에 따른 동맥 부하를 낮춰 심부전 예방에도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런 연관성은 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심장적응과 운동능력 등에 성별로 다른 강력한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성인의 신체활동과 좌심실 이완장애의 연관성을 밝힌 첫 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승호 교수는 “장기간의 지구력 운동은 심실의 균형 잡힌 확장으로 이어져, 수축성에 뚜렷한 변화 없이도 심장기능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심부전을 예방하려면 좌심실 이완장애 이전단계부터 예방이 필요한 만큼 평소에 꼭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 최근호에 발표했다.



헬스 사이클 자전거 타기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